

“100년의 삼림 구상”을 기점으로 하는 로컬 벤처기업과의 협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이유]

인구 1,500명 정도의 니시아와쿠라촌은 주고쿠 산지의 골짜기, 오카야마현의 북동단에 위치해 있다. 면적 5,793ha 중 5,491ha가 삼림이고 삼림 면적의 약 84%가 인공림이며, 장기적인 숲아베기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중산간 지역의 “촌”이다. 2004년부터 3년간 촌의 장래상과 산업, 경제 활성화에 대해 주민, 행정, 기업이 협동해 검토를 거듭했다.



100년의 삼림 사업

[사업 목적]

약 60년 전에 심어진 삼나무와 노송나무 인공림을 훌륭한 100년생 삼림으로 키우고 삼림과 관련된 촌 내 다양한 사업체가 협동하며 작아도 “분수에 맞는” 고용과 경제를 창출해 지역 지속으로 이어 나가고자 했다. 2008년에 “100년의 삼림 구상”(수령 100년의 아름다운 삼림으로 둘러싸인 “럭셔리한 시골”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착상해 자연 자본인 삼림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사업 개요]

◆ 100년의 삼림 사업

1. 촌이 산과 숲 소유자와 “삼림 장기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자의 시업비 부담을 없애고 삼림관리 집약화를 통해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원목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 숲의 학교 사업

1. 삼림·목재산업에서 I턴한 젊은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로컬 벤처기업을 창업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삼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 “환경모델 도시 구상”,

“바이오매스산업 도시 구상” 사업

1. 삼림을 적절하게 관리해 안정된 하천수를 이용하는 수력발전소(290kw, 5kw)를 건설해 그 전력을 판매한 수입을 삼림 정비와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에 재투자하고 있다.
2. 100년의 삼림 사업으로 반출되는 숲아베기 미이용재와 임지 잔재, 숲의 학교 사업으로 발생하는 제재 부스러기를 이용해 촌 내 온천시설 3곳에 장작 보일러(합계 685kw)를 도입했다. 또한 목질칩 보일러(530kw)를 이용해 공공시설

6곳에 파이프라인으로 온수를 공급해 난방과 온수를 해결하는 지역 열공급 시스템과 재해 시에도 목질칩으로 자립운전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 시스템(50kw)을 정비하고 있다.

◆ 로컬 벤처기업 추진 사업

1. “로컬 벤처 스쿨”은 촌을 거점 삼아 창업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모집한다. 1차 선고를 통과한 제안 사업은 3개월간 사업과 관련된 외부 및 지역 내 멘토의 서포트를 받으며 다듬어 나간다. 인정되면 지원체제를 구축해 창업을 목표로 한다. 이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살리기협력대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2. 로컬라이프랩은 지역의 연구원으로 1년간 지내며 지역 자본을 발견하고 2년째 이후부터 로컬 벤처 스쿨 과정에 돌입한다.
3. 로컬벤처추진협의회는 니시아와쿠라촌과 다른 9개 지자체, NPO 법인 ETIC가 연계해 도쿄에서 민관 광역 연계를 통한 인재 획득 구조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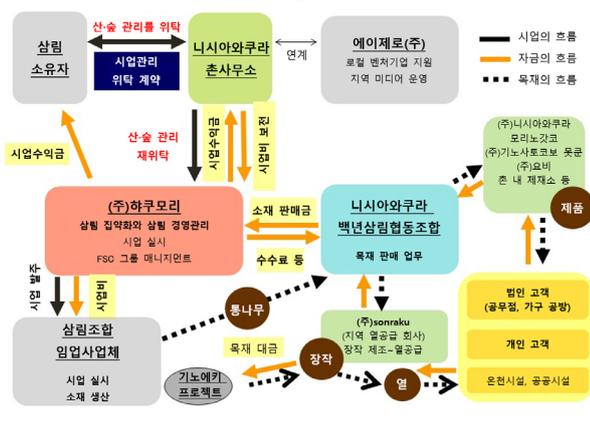
지자체가 경영계획을 세우고 집약화를 통한 삼림관리를 실시해 그들에 다양한 인재와 로컬 벤처기업 및 IT, 신탁은행 등이 참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삼림경영관리법의 모델이 됐다.

2. 2008년에 펀드를 모집해 420명 이상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약 4,200만 엔의 자금을 조달했다. 삼림을 기축으로 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도시부를 중심으로 하는 응원자와 고객 창출로 연결했다.
3. 재생 가능 에너지 대책은 저탄소 지역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외부로 유출되던 에너지 비용을 지역 내부로 순환시켜 전력 판매 수입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4. 지역에서 활약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의 가치관을 발빠르게 파악한 정책은 일본 전국의 모델이 됐다. 로컬 벤처기업의 발상지로도 불린다.

[사업 효과]

- ◆ “삼림장기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면적은 1,488ha(725명)이며, 이는 대상 산과 숲의 약 50%에 해당한다. (2019년 3월 시점)
- ◆ 2008년부터의 사업 실적은 슈아베기 1,649ha, 삼림 내 도로 정비 약 100km이며, 목재로 반출한 나무 부피는 약 10,000m³에 이른다.
- ◆ 2006년부터 12년간 34개 기업이 창업됐으며, 18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로컬 벤처기업의 생산액은 약 13억 엔에 이른다.
- ◆ 2006년부터 촌으로 I턴한 사람은 180명이며, 139명이 정주하고 있다. (2019년 3월 시점)

100년의 삼림 사업 계획



“100년의 삼림 사업” 계획도

[장점, 선진성]

1. 새로운 삼림관리 형태를 제시
삼림자본 가치의 최대화를 테마로

[과제, 문제점과 대응]

- ◆ “100년의 삼림 사업”은 11년이 경과됐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면적은 대상의 약 50%에 그쳤으며, 소유자도 약 40%가 외부인이다. 향후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 도시부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과 숲의 이용권을 촌이 확보해 도시부에 있는 소유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삼림상사신탁, 삼림 정보를 소유자와 촌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민간 기업과 협동해 개발하고 있다.
- ◆ “100년의 삼림 사업”은 주로 목재 반출을 전제로 집약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능선 부분의 인공림은 경제림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촌의 환경과 회복력을 유지하려면 목재를 반출한 후 환경림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SDGs 모델 사업은 본래의 삼림 디자인을 새로이 검토하는 협의회를 설치했다.
- ◆ I턴에 의한 창업과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촌의 경제기반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창업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촌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자립을 촉진한다.
- ◆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동, 참여가 과제이다. SDGs와 ESD 활동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관심을 높인다.

[향후 전개(기대되는 효과와 사업 전망, 과제 등)]

- ◆ SDGs 모델 사업
물질 소비에서 체험 소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100년의 삼림 구상”을 재설계해 GDP를 창출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을 창출한다.

- ◆ 환경모델 도시
199kw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지역 열공급 시스템, 목질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정비한다.
- ◆ 로컬벤처추진 사업은 많은 지자체와 연계해 식견을 공유하고 젊은이가 촌에서 창업하도록 촉진한다.

[참고 URL]

<http://www.vill.nishiwakura.okayama.jp/wp/>
(니시아와쿠라촌 홈페이지)
<https://www.a-zero.co.jp/lvs-nishiwakura/>
(로컬 벤처 스쿨)
<http://throughme.jp/>
(Throughme 생활의 확장)

[소관 연락처]

담당 소속: 산업관광과
전화번호: +81-868-79-2111
이메일: ta-ueyama@vill.nishiwakura.lg.jp

[사용한 전문 용어, 조어의 의미]

지역살리기협력대 제도: 도시 지역에서 인구 과소화 지역 등으로 생활 거점을 옮긴 자를 지방공공단체가 일정 기간 채용한다. 대원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지 특산물을 개발하고 주민 생활을 지원하며 그 지역에 대한 정주와 정착을 위해 활동한다.

I턴: 진학 또는 취직을 계기로 고향에 없는 요소를 찾아 태어나 자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삼림경리관리법:
삼림상사신탁:
환경림:
경제림:
ESD: